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		다 같 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위에 있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새출발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가족이 말씀에 순종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삶의 시련들을 함께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	송-----	358장(아침해가 돋을 때)-----	다 같 이
		<기쁨으로 찬양:48장/나의 가는 길>	
기	도-----	가족중에서	
설	교-----	여호수아1:1-9(구약 p320)-----	인 도 자

마음에 담아야 할 것들(수1:1-9)

201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그러나 쉽지 않은 한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원하든,원하지 않든 2012년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그것은 마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원하든,원하지 않든,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여호수아도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어떻게 이백성들을 인도해야 할까 말입니다.그것은 마치 우리가 다가온 이 한해를 어떻게 보내야할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를 말씀해 줍니다.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그러면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에 무엇을 담으라고 하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먼저,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담고 살라고 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땅으로 가라” 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저 땅을 주시려나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이스라엘자손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땅인데 그땅은 단순히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그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요,축복의 땅입니다.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땅이 아니라 인간구원의 근거가 되는 땅이요,주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땅에 이르는 엄청난 사명이 숨어있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땅에 것만을 이루려는 알팍한 야망을 벗어나 이땅의 삶이 쉽든지, 어렵든지 항상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 혹은 잘 될 때나 안될 때,병들 때나 건강할 때,젊을 때나 노년이 되었을 때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평안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성도는 세상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감을 이 한 해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사명을 잊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2)또하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을 향한 신뢰를 마음에 담고 살라고 하십니다.

본문 3-7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백성들을 향한 약속들로 가득차 있습니다.3절에는 “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에는 “너희 영토가 되리라” 5절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등등 여러 가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약속들로 인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백성들은 마음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약속들을 성취하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안될 것입니다.왜냐하면 약속은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7절에 보시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말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그 의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도 옳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생길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단계를 한단계,한단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금년 한해를 살면서 옳고 선한 일을 많이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많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거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그럴 때 이 한해 축복된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3)끝으로,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라고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대안으로 삼고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불확실성과 불안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도 없고 표준도 없이 그저 상황 따라서 자기들의 소견에 맞는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말씀을 삶의 기준과 대안으로 삼고 살 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불행한 삶이고 무가치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과 실존을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큰 지혜와 능력이 됨을 사도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묵상을 정리합니다. 올 한해, 기대도 갖게 되지만 불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으라고 한 것을 잘 담으면 올 한해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들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12년 한해가 바로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 송-----248장(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다 같 이
 <기쁨으로 찬양:63장/나의 안에 거하라>

축복과 비전나눔-----다 같 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의 비전을 집안 어른들과 함께 나눕니다>

마 침-----<주기도문>-----다 같 이